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30.(금) 14:30 < 7. 1.(토) 조간 > 배포 2023. 6. 30.(금)

미국 하원 에너지 소위 대표단과 한미 간 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 5명의 하원의원 방한 계기, 원전, 천연가스 등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6. 30.(금) 오후, 미국 하원 에너지·기후·전력망 소위원회 소속 5명의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간 원전과 천연가스 협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미 하원 대표단은 ①제프리 던칸 소위원장(Jeffrey Duncan,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②팀 왈버그 의원(Tim Walberg, 공화-미시건), ③데비 레스코 의원(Debbie Lesko, 공화-애리조나), ④랜디 웨버 의원(Randy Weber, 공화-텍사스), ⑤스콧 피터스 의원(Scott Peters, 민주-캘리포니아)으로 한국과의 에너지 안보 협력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던칸 소위원장은 작년 11월에 '국가 원자력 청사진' 발표하는 등 미국 의회에서 원자력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의원으로,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소형모듈 원자로(SMR) 개발 등을 포함하여 한미 간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측은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동반자(파트너)인 만큼, 원전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미국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미국은 호주, 카타르에 이어 세계 제3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며, 우리는 미국과 셰일가스 장기계약을 토대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양측은 앞으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과학법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승헌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윤경민 (044-203-5658)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국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호성 (044-203-5120)
		담당자	서기관	유재영 (044-203-5125)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덕열 (044-203-5230)
		담당자	주무관	심승현 (044-203-5236)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5330)
		담당자	사무관	이민석 (044-203-5333)